



2022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전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쉬운 작품 해설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쉬운 작품 해설은 모두가 편하게
전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돕기 위해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으로 움직이기》전시 담당 학예사,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이
함께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시명

2022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전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기간

2022.03.22. - 2023.03.19.

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2

참여 작가

강상우, 박원주, 배영환, 손국연,
송영화, 안지산, 윤정미, 이불,
이상현, 이수경, 정서영, 정연두,
정재석, 정정엽, 조동환·조해준, 홍영인

박원주



①



②

①〈퍼기_192110(부제: 한 남자의 초상* 1921)〉

작가 이름 : 박원주
 만든 때 : 2007년
 만든 재료 : 나무, 유리 등 다양한 재료
 작품 크기 : 세로 35센티미터(cm) 가로 32센티미터(cm) 폭 11센티미터(cm)

②〈퍼기_200206(부제: 한 여자의 초상 2006)〉

작가 이름 : 박원주
 만든 때 : 2007년
 만든 재료 : 나무, 유리 등 다양한 재료
 작품 크기 : 세로 31센티미터(cm) 가로 24센티미터(cm) 폭 7센티미터(cm)

* 초상 그림, 사진 등으로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이 작품은 나무 액자와 그 안의 유리를
 마치 종이처럼 구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작품 제목은 '구기기'가 아닌 '펴기'일까?

어쩌면 이 작품의 원래 모습은 지금보다 더 구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 구겨져 있던 작품을 조금 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면,
 박원주 작가는 작품을 구긴 것이 아니라 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는 왜 '펴기' 작품을 끝까지 펴지 않고
 덜 펴진 채로 놔둔 것일까?

무엇이든 구겨져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꼭 완전히 펴져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완전히 편다면 모두 비슷비슷해 보일 것이다.
 오히려 조금씩 접히고, 구겨져 있어야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의 몸도 완전히 펴져 있지는 않다.
 각자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모두 모습이 다르다.
 작품의 제목에는 '여자',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작품의 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자, 남자의 모습과는 다르다.
 박원주 작가는 '남자'도 '여자'도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재석



〈연인 또는 부부〉

작가 이름 : 정재석
만든 때 : 2006년
만든 방법 : 사진 위에 유채 물감으로 그림
작품 크기 : 세로 73센티미터(cm) 가로 91센티미터(cm)

〈연인 또는 부부〉는 여성 또는 남성의 얼굴 사진을 절반씩 합친 작품이다.
 두 사람의 눈높이를 똑같이 맞춘 다음 유화 물감을 덧입혔다.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작품은 남성이나 여성의 모습, 또는 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주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 짝을 이루는 관계를 생각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담긴 독특한 얼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지는 작가에게 중요하지 않다.

정재석 작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 속 사람은 여성일까, 남성일까?
 사진 속 사람들은 연인일까, 부부일까?
 모두 다 대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정미



①



②

①〈블루 프로젝트-콜과 콜의 파란색 물건들〉

작가 이름 : 윤정미
 만든 때 : 2006년
 만든 방법 : 라이트 젯 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122센티미터(cm) 가로 122센티미터(cm)

②〈핑크 프로젝트-지우와 지우의 핑크색 물건들〉

작가 이름 : 윤정미
 만든 때 : 2007년
 만든 방법 : 라이트 젯 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122센티미터(cm) 가로 122센티미터(cm)

* **라이트 젯 프린트**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 중 하나.
 잉크를 뿌려서 사진을 인쇄한다.

윤정미의 〈블루 프로젝트-콜과 콜의 파란색 물건들〉,
 〈핑크 프로젝트-지우와 지우의 핑크색 물건들〉은 사진 작품이다.
 〈블루 프로젝트-콜과 콜의 파란색 물건들〉 작품에는
 남자아이 콜과 파란색 물건들이 보인다.
 〈핑크 프로젝트-지우와 지우의 핑크색 물건들〉 작품에는
 여자아이 지우와 분홍색 물건들이 보인다.
 두 사진 속 아이들은 사진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 등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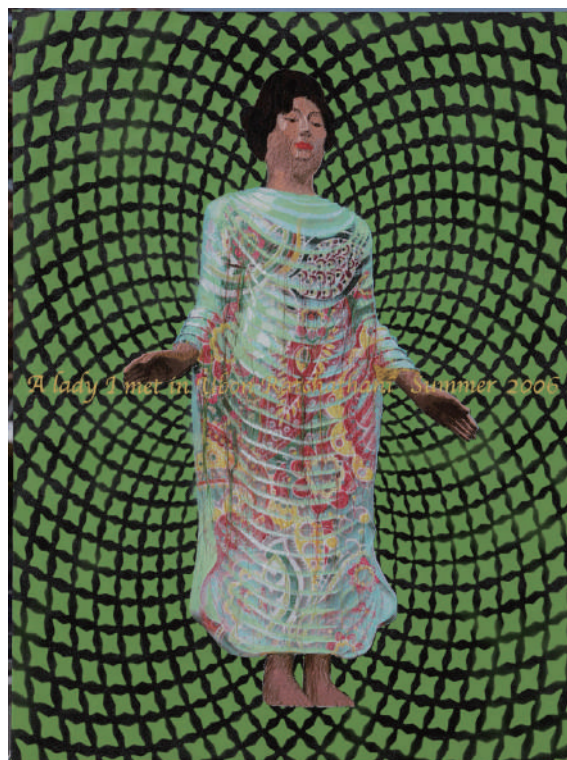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콜과 지우의 방에 찾아갔다.
 그리고 아이들의 물건 중 파란색, 핑크색 물건들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그 물건들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았다.

윤정미 작가는 2005년부터
 여러 명의 남녀 어린이들과 그들의 물건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물건을 모으고 싶어 하는지 보여준다.

홍영인



1



2

1 <타일랜드에서 만난 두 신사들 2006년 여름>

작가 이름 : 홍영인
 만든 때 : 2008년
 만든 재료 : 천(무대 배경 천), 아크릴 물감, 스프레이, 실
 작품 크기 : 세로 205센티미터(cm) 가로 140센티미터(cm)

2 <우본 라자타니에서 만난 한 여성 2006년 여름>

작가 이름 : 홍영인
 만든 때 : 2008년
 만든 재료 : 천(무대 배경 천), 아크릴 물감, 스프레이, 실
 작품 크기 : 세로 150센티미터(cm) 가로 112센티미터(cm)

조각상, 카펫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사람들은 보통 조각상은 딱딱하고, 카펫은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조각상은 딱딱하고, 모든 카펫은 부드러울까?

2개의 작품은 홍영인 작가의

‘동상 시리즈(Statue Series스태추 시리즈)’ 중 일부이다.

‘동상’은 원래 딱딱한 조각상을 뜻하지만

이 작품에서 동상은 부드러운 자수로 표현되었다.

카펫처럼 보이는 작품 배경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것이다.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듯하지만

아크릴 물감은 굳었을 때 딱딱해지는 물감이다.

홍영인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동상도 부드러울 수 있고,

카펫도 딱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은 우리가 조각이나 그림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홍영인 작가는 다른 작품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 등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한다.



〈캐주얼 비주얼〉

작가 이름 : 송영화
 만든 때 : 2006년
 만든 재료 : 분쇄토*, 화장토**
 작품 크기 :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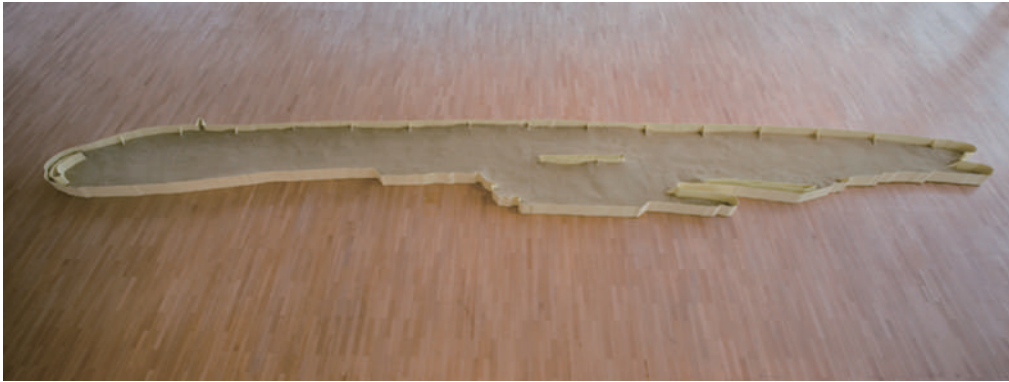
-
- * 분쇄토 도자기나 조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흙
 - ** 화장토 도자기에 색을 입히거나 장식을 위해 사용하는 흙
 - *** 가변 크기 전시마다 작품 전체 크기가 달라지는 것

사람의 몸통처럼 보이기도 하고,
입혀진 옷처럼 보이기도 하는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흙으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조각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다른 모습이다.
조각들을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몸의 일부인지 입는 옷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여성의 몸인지 남성의 몸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인가, 또는 저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수십 개의 조각들이 어느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캐주얼 비주얼〉 작품을 바라보다 보면 누군가를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몸의 모양 때문일까, 입는 옷의 종류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일까?

정서영



①



②

①〈정오에서 자정까지〉

작가 이름 : 정서영
 만든 때 : 2007년
 만든 재료 : 금속(알루미늄)에 연한 노란색으로 색칠, 모래
 작품 크기 : 세로 56센티미터(cm) 가로 460센티미터(cm) 폭 7센티미터(cm)

②〈거위〉

작가 이름 : 정서영
 만든 때 : 2007년
 만든 재료 : 시멘트
 작품 크기 : 세로 102센티미터(cm) 가로 34센티미터(cm) 폭 38센티미터(cm)

정서영 작가의 <정오에서 자정까지>와 <거위>는
각각 사용된 재료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살린 작품들이다.

<정오에서 자정까지>는 모래를 담은 긴 금속 틀이
5미터 정도로 길게 설치된 작품이다.

작은 모래가 구불구불한 금속 틀 안에 담기면서
모래와 금속의 서로 다른 특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목인 정오(낮 12시)에서 자정(밤 12시)까지는 총 12시간으로 하루의 반이다.
정서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관객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에서 '시간'을 느끼게 된다.

<거위>는 단단하고 무거운 시멘트로 만들어졌다.

원래 거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동물이지만,
이 작품은 아주 무겁고 날기 어려워 보인다.

시멘트 덩어리에 발이 붙잡힌 듯 거위의 발도 보이지 않는다.

관객이 실제 거위를 보았던 경험의 기억은 이 작품을 보면서 새로워진다.
이렇듯 정서영 작가는 관객들이 작품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손국연



①



②

①〈중국에 있는 조선인 No.15〉

작가 이름 : 손국연
 만든 때 : 2008년
 만든 방법 : 디지털 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160센티미터(cm) 가로 122센티미터(cm)

②〈영원한 달콤함〉

작가 이름 : 손국연
 만든 때 : 2005년
 만든 방법 : 디지털 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160센티미터(cm) 가로 87센티미터(cm)

* **디지털 프린트**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 중 하나.
 잉크가 아닌 빛을 이용해 사진을 인쇄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인 No.15〉와 〈영원한 달콤함〉은 모두 손국연 작가가 2000년대 초에 만든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당시에 작가가 가졌던 고민들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조선인 No.15〉는 1994년 발표한
연작 '평화로운 욕망들(Peaceful Desires피스폴 디자이어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평화로운 욕망들'은 한 여성이
중국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작품을 손국연 작가는 중국과 북한,
남한이 있는 지도 위에 다시 그려
〈중국에 있는 조선인 No.15〉을 만들었다.
북한 사람인 손국연 작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에서만 활동했고,
2002년부터 작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손국연 작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은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영원한 달콤함〉에서 손국연 작가는 벗은 몸 위에 설탕을 바른 채 사진을 찍었다.
작가의 표정이나 자세는 자기 자신을 무척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듯하다.
'달콤한' 설탕을 몸에 바른 채 보여주는 손국연 작가의 태도는
작가가 여성으로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과 연달아 발표한 작품들에서도 작가는 '설탕'을 사용해
달콤한 삶을 표현했다. '인생은 쓰다'고 자주 말하는 우리에게
작가는 삶의 달콤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정연두



①



②



③

①〈수공기억〉

작가 이름 : 정연두
 만든 때 : 2008년
 만든 방법 : 2채널 비디오*
 작품 길이 : 48분 45초

②〈수공기억-육간대청〉, ③〈수공기억-보리밭〉

작가 이름 : 정연두
 만든 때 : 2008년
 만든 방법 : C-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66.3센티미터(cm) 가로 99.5센티미터(cm)

* **2채널 비디오** 2개의 화면에서 영상이 나오는 방식

** **C프린트**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 중 하나.

필름 사진처럼 약품을 이용해 사진을 인쇄한다.

이 작품은 영상과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은 양옆으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화면에서 나온다.

오른쪽 화면에는 정연두 작가가 노인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나온다.

왼쪽 화면에는 작가가 그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를 활용해

무대를 만드는 과정이 담겨있다.

작품의 제목 〈수공기억〉에서 ‘수공’은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정연두 작가에게 직접 들려준다.

작가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직접 만들어낸다.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대를 만들고 있다.

영상 옆에는 사진 작품 〈육간대청〉과 〈보리밭〉이 걸려있다.

〈육간대청〉에는 노인이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이 나타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집처럼 보이는 무대 모습도 담겼다.

〈보리밭〉에는 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있다.

보리밭처럼 꾸민 무대 모습도 담겼다.

작품은 노인이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와

정연두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함께 보여준다.

노인의 기억 속에 담긴 개인의 이야기를

작가는 영상으로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객들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게 된다.

강상우



〈클린 미〉

작가 이름 : 강상우
만든 때 : 2014년
만든 방법 : 싱글 채널 비디오*, 소리
작품 길이 : 21분 37초

* **싱글 채널 비디오** 1개의 화면에서 영상이 나오는 방식

이 영상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감옥에 간 병철의 이야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본다.
 이들은 감옥에 갔다가 나온 후, '갱생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영상은 갱생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지내는 병철의 일상을 담고 있다.

작품의 제목 <클린 미>는 '나를 청소하다'라는 뜻이다.
 영상 속 병철은 이곳저곳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한다.
 청소를 해서 더러운 것을 없애듯,
 자신의 죄도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

영상에는 병철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나올 뿐,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병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꾸준하게 열심히 청소 일을 하는 병철의 모습 자체로 감동을 준다.

* **갱생원**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생활하는 시설이다.



〈번역된 도자기〉

- 작가 이름 : 이수경
 만든 때 : 2006년
 만든 재료 : 도자기 조각, 얇은 금, 에폭시*
 작품 전체 크기 : 세로 370센티미터(cm) 가로 370센티미터(cm) 폭 70센티미터(cm)

* **에폭시** 플라스틱의 한 종류.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붙일 때 사용한다.

〈번역된 도자기〉는 총 56개의 도자기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된 도자기〉는 이수경 작가가 버려진 도자기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다.

여러 개의 도자기에서 나온 조각들을 마구 섞어 서로 이어 붙인 것이다.

이어 붙인 부분에는 금박을 입혔다.

금박은 금을 종이처럼 아주 얇게 눌러 편 것을 말한다.

작품 제목에서 '번역'은 어떤 글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듯, 이수경 작가도 버려진 도자기를

도자기 원래의 모습이나 쓰임과 다르게 새로운 작품으로 바꾼 것이다.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 도공은

완성된 도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겨서 깨뜨려 버린다.

사람도 '버려진 도자기 조각' 같은 실패나 상처를 겪곤 한다.

이수경 작가가 깨진 조각을 하나씩 붙여가며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삶의 실패나 상처의 슬픔까지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 괜찮다고,

계속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새롭게 태어난 도자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잔잔한 물결에서의 삶〉

작가 이름 : 안지산
 만든 때 : 2016년
 만든 방법 : 캔버스*에 유채 물감으로 그림
 작품 크기 : 세로 200센티미터(cm) 가로 290센티미터(cm)

* **캔버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천.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리는 그림인
 '유화'에 주로 사용된다.

안지산 작가가 그린 〈잔잔한 물결에서의 삶〉 작품에는
울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예술가 ‘바스 얀 야델’의 영상
〈나는 말할 수 없이 슬퍼〉에 나오는 사람이다.

안지산 작가는 작품에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그림 작가다.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느낀 안지산 작가의 슬픔이
새로운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슬픔은 작품이 만들어졌던 때 일어난 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은 말레이시아 비행기 격추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비행기 격추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말레이시아 항공의 비행기가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사건도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배가 가라앉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건 모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사건이다.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된다.

작가는 슬픔을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작품으로 전하고 있다.

배영환



①



②

①② 〈남자의 길-불광동 첫사랑 1, 2〉

- 작가 이름 : 배영환
- 만든 때 : 2007년
- 만든 재료 : 버려진 나무, 자개장 조각 등 다양한 재료
- 작품 크기 : ① 세로 105센티미터(cm) 가로 30센티미터(cm) 폭 8센티미터(cm)
② 세로 110센티미터(cm) 가로 45센티미터(cm) 폭 15센티미터(cm)

무늬는 화려하지만 낡은 기타 2대가 사진과 함께 놓여있다.

〈남자의 길-불광동 첫사랑 1, 2〉는 버려진 나무와 자개장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자개장은 조개껍데기를 붙여서 만든 가구다.

1980년대에 유행했고, 당시에는 주로 여성들이 즐겨 사용했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아 버려진 자개장 조각들을 사용해 만든 이 기타는 소리가 나지 않는 기타다.

누구나 '첫사랑'처럼 행복하고 화려했던 과거가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두 기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의 기억을 더듬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배영환 작가는 오래되어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한다.



〈조선역사명상열전 부소산 두야송객도(1)〉

작가 이름 : 이상현
만든 때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만든 방법 : 디지털 프린트*
작품 크기 : 세로 110센티미터(cm) 가로 170센티미터(cm)

* **디지털 프린트**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 중 하나.
잉크가 아닌 빛을 이용해 사진을 인쇄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 우리 땅 이곳저곳을 샅샅이 조사했다.
 이상현 작가는 이에 대한 기록이 담긴 문서를 인사동 헌책방에서 발견했다.
 『조선고적도보』란 제목의 이 문서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이 있다.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을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크기를 재는 도구처럼 이용했고
 이 사진 속에 그 장면이 담겨있다.
 이상현 작가는 『조선고적도보』 속 사진에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합성했다.
 작가가 『조선고적도보』를 <조선역사명상열전>이라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상현 작가는 영화 <거짓말>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자신이 작가인지 배우인지에 대해 오래 고민해 왔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고 한다.
 작가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이 작품 속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속 우리나라 사람 역시 나라를 잃은 슬픔,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등을 느끼지 않았을까?

<조선역사명상열전>은 총 20개의 사진으로 된 작품이며
 그중 19개가 경기도미술관에 있다.

이불



〈무제〉

- 작가 이름 : 이불
만든 때 : 2008년
만든 재료 : 폴리우레탄 캐스트, 페인트, 양면 거울, 형광등, 나무로 된 창틀
작품 크기 : 세로 160센티미터(cm) 가로 120센티미터(cm) 폭 13센티미터(cm)

기계처럼 보이는 액자 속 물체는 폴리우레탄 캐스트로 만들어졌다.

폴리우레탄 캐스트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재료로, 고무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든다.

액자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모양의 기계들이 끝도 없이 쪽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끝이 어디인지 보려고 해봐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이 액자가 걸려있는 벽도 저 깊숙한 곳까지 뚫려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벽은 뚫려있지 않고, 얇은 액자만 걸려있을 뿐이다.

〈무제〉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거울인 양면 거울을 마주 대고

빛을 비추어 만든 작품이다.

양면 거울에 빛을 비추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가 끝도 없이 많아 보이게 된다.

이불 작가는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불 작가의 작품 〈무제〉는 관객이 작품을 보는 동안,

마치 공간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만약 이 액자 속 모습이 진짜라면 어떨까?

갑자기 내 눈앞에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이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액자 속에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미군과 아버지〉

- 작가 이름 : 조동환, 조해준
만든 때 : 2005년
만든 방법 : 종이에 연필로 그림
작품 크기 : 세로 160센티미터(cm) 가로 140센티미터(cm) 폭 140센티미터(cm)

〈미군과 아버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림 22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만화책처럼 한 장씩 넘기면서 볼 수 있다.

작가 조동환과 조해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미군과 아버지〉는 아버지인 조동환 작가가 미군과 겪었던 경험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을 만들면서 아들 조해준은 아버지 조동환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독립한 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사건, 6·25 전쟁 등의 역사다.
하지만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우리가 알 수 없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한 개인의 역사를 보여준다.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건 어떨까?



①



②



③

①〈지워지다-심장〉

②〈지워지다-씩〉

③〈지워지다-두더지〉

작가 이름 : 정정엽

만든 때 : 2006년

만든 방법 : 캔버스*에 유채 물감으로 그림

작품 크기 : ① 세로 180센티미터(cm) 가로 145센티미터(cm)

② 세로 180센티미터(cm) 가로 145센티미터(cm)

③ 세로 162센티미터(cm) 가로 132센티미터(cm)

* 캔버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천.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리는 그림인
'유화'에 주로 사용된다.

정정엽 작가는 붉은 잉크를 사용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들을 그리는 작업을 해왔다.

정정엽 작가가 만든 '지워지다' 작품들 중
경기도미술관에 나란히 전시된 3가지 작품 〈심장〉, 〈쌈〉, 〈두더지〉도
푸른색 바탕에 붉은 색으로 표현됐다.
모두 실제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워지다-심장〉은 몸 안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을 표현한 작품이다.
중간에 그려진 힘줄이 마치 바람에 움직이는 나무 같기도 하다.

〈지워지다-쌈〉에서는 쌈이 난 감자가 보인다.
쌈 난 감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 같다.

〈지워지다-두더지〉에서 작가는
털이 수북한 두더지의 둥근 몸을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두더지가 따뜻한 햇볕을 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두운 땅속에서 살아가는 두더지의 삶이 그림에서는 반대로 표현됐다.

정정엽 작가의 '지워지다' 작품들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잊고 있던 것들을 달리 바라보게 한다.

